



올 경제지표 환란 이후 최악

경상수지 11년만에 적자... 물가 상승 1998년 이후 최고
투자, 7년만에 마이너스... 취업률·국민소득도 하강곡선

올해 경제지표들이 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11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는 정보·통신 버블 붕괴로 경제가 내리막에 있었지만 200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취업자 증가인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제일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 급등으로 국민소득은 1년 만에 2만 달러대에서 1만8천 달러대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 1만8천달러대로 = 지난해 2만 달러를 돌파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로 환산하는 국민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9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환율을 1,061원,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4.4%,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2.8%로 각각 가정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300달러로 지난해 2만450달러보다 8.7% 급감, 2006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 11년만에 적자=올해 연간 경상수지는 1997년(-82억9천만 달러)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경상수지 누적적자는 90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 6월 18억2천만 달러 흑자에서 7월 25억3

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선 뒤 8월 -47억 달러, 9월 -13억5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전망치로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4.9%를, 금융연구원은 4.8%, 현대경제연구원은 4.7%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급등했다. ◇투자 7년 만에 마이너스 가능성=투자지표인 총고정자본 형성은 1~9월에 0.7%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등으로 구성되는 총고정자본 형성의 증가율은 1~9월 기준으로 2000년에 15.7%였으나 2001년 -2.5%로 돌아섰다. 이후 2002년 5.7%, 2004년 3.4%, 2006년 3.0%에 이어 2007년 4.5%를 나타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총고정자본 형성은 '제로 증가율'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투자는 2001년(-0.2%) 이후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인원 5년래 최저=올해 1~10월중 취업자 증가인원은 16만 6천9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8만 3천500명보다 41.1%나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인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03년(-3만명) 이후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
“한국경제 내년 초부터
바닥치고 회복세 전환”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과장은 9일 “한국 경제는 내년 1분기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중반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약차 3일간 일정으로 방한한 그는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이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24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3.5%에서 2.0%로 1.5%포인트 크게 낮춘 바 있다. 향후 전망치도 상당보다는 하락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전했다. 랄 과장은 “전체적으로 경기활동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라며 “다만 경상수지는 내년에 흑자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이 줄어드는 등 무역부문의 광황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금융시스템은 펀더멘털이 건전하고 외채 관련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물과 금융이 서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둔화세가 굉장히 심각하고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다-레버리지(차입축소)’ 과정이 계속 될 것”이라며 “회복은 ‘V자형’이 아닌 ‘U자형’으로 상당한 완만하고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시장 상인 2만명 소액대출

매년 점포당 300만원씩 저리로 서민경제 지원

매년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2만여명이 생업자금으로 저리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상인회는 이 자금을 받아 소속 상인에게 빌려주게 된다. 대출액은 점포당 최고 300만원, 이자율은 연 4.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로 연장 가능하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이달 중 서울의 25개 전통시장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7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



‘HP 컬러 레이저젯 프린터·복합기’ 9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HP 컬러 레이저젯 프린터 및 복합기 신제품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카탈로그, 템플릿, 라벨 등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을 생성한 색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CP3525 등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SK그룹 CEO ‘올해의 사자성어’

疾風勁草

〈질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한 풀〉

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친다〉

‘질풍勁草(疾風勁草), 승풍파랑(乘風破浪), 풍운지회(風雲之會)...’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나가는 상황을 반영하면서 위기극복의 의지가 담겨있다. 9일 SK에 따르면 그룹 사보가 송년 특집으로 관계사 CEO 11명에게 2008년 한해를 압축한 ‘올해의 SK 사자성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신원철 SK 에너지 부회장은 그룹 경영전략인 ‘따로 또 같이’를 뜻하는 ‘일로동행(一路同行)’을 들었다. 신 부회장은 “올해는 경제위기 속에서 (관계사별로) 각자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분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SK는 올해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단련된 힘과 지력을 보여줬다”면서 ‘질풍勁草(疾風勁草)·격심한 바람이 불고 나서야 비로소 강한 풀의 존재를 안다는 뜻’을 꼽았다. SK해운 이경화 사장은 “뒀한 바를 이루기 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감”을 뜻하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을, SK C&C 윤석경 사장은 “여러분 상환일수록 기본에 충실해 뜻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각각 꼽았다. /연합뉴스

10조원 채권펀드 내주부터 운용

정부 채권시장 유동성 공급 본격화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증권협회 부회장과 금융발전심의위원 3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은 8일 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3년 만기 중도환매 금지 사모펀드인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펀드 오브 펀드’ 형태란 통합펀드에서 자금을 운용하되 은행, 회사채, 여

농협, 전방위 개혁 기구 출범

위원 11명 ‘농협개혁위원회’ ... 인력 감축안 등 제시할 듯

농협중앙회장 인사권 제한 등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 농협의 전반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농협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11명의 농협개혁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오후 2시 과천청사에서 첫번째 개혁위원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학수 농식품부 1차관과 김안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의료비 카드 결제 땀 ‘중복공제’ 받는다

올 연말정산분부터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인사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세액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에 각각 3%와 10%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여자대학교IT센터	[국비] JAVA Linux/네트워크시스템 보안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514-0064
농협회사법인한두래농산(주)	과일 채소 선별 포장 작업/회계경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2	062-655-6688
(주)신한광고	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944-7799
(주)현석건설	건축기사 및 토목기사	(유)1위/경력3년	2000~2200	12/13	062-651-7538
(주)후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역/사무114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12/14	02-780-9595
이엘스튜디오	여성복이나 유아복 쇼핑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4	062-222-2245
(주)아이노백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광고, 광고디자인, 광고기획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2/14	062-225-3497
(주)에이치오엔 미니골프	[유틸리티]신세계광주점 주원리판매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2-2103-4563
미래에셋생명 신세계지점	[주5일]전문금융컨설턴트 정규직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4000~5000	12/15	062-382-1007
(주)대원엔지니어링	토목설계 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2-384-8240
한국캠보로(주)	경리, 회계, 사무관리, 전산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2-514-4187
여수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에서 의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6	061-640-7143
기흥관리시스템	광주지역 KTT 공동주택 무인경비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6	062-511-777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반토막 펀드’ 세금 부과 왜?

주식 아닌 채권서 이익 발생땀 소득세 내야

펀드가 손실났는데 왜 세금은 부과될까. 국제청이 9일 밝힌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에 따르면 이는 현행 세법이 펀드의 주식 매매 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라도 주식 외에 채권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에 수익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 60%를 주식에, 40%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최근 증시 폭락으로 주식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더라도 채권에서는 소액이나마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청은 주식은 실사 두 배로 불어나도 세금을 매길 수 없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 해외 투자 펀드는 내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자 환율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이 반토막만 해외 펀드에 세금이 따라붙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완충장치를 설치해 손실한 펀드에 세금까지 내는 ‘냉가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펀드의 매년 결산시점에서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시점을 투자자가 환매시점이나 결산시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